

달라이라마 · 현각 스님
일본 요코하마 특별대담

맹목적 믿음 경계... 끊임없이 공부해야

달라이라마는 11월 5일 일본 요코하마 인터 콘티넨탈호텔 특별법회장에서 한국불자들을 위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독일 불이선원장 현각스님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달라이라마는 “매일 수행을 멈추지 말고, 부처님이 누구이며 가르침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또 “맹목적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듣고 분석하고 이해해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불교TV**

진정으로 신념 따르면 종교 붕괴되지 않아

현각 스님: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불교는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많은 불자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단지 전통으로 여기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의식과 의례로 받아들인다.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기독교인과 이슬람인들도 자신의 믿음을 의식과 의례로 받아들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붕괴되고 있다. 종교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따를 경우에는 절대로 붕괴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열심히 공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티베트에는 빨리와 산스크리트어에서 번역된 경론이 300부정도 있다. 티베트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주석서는 수천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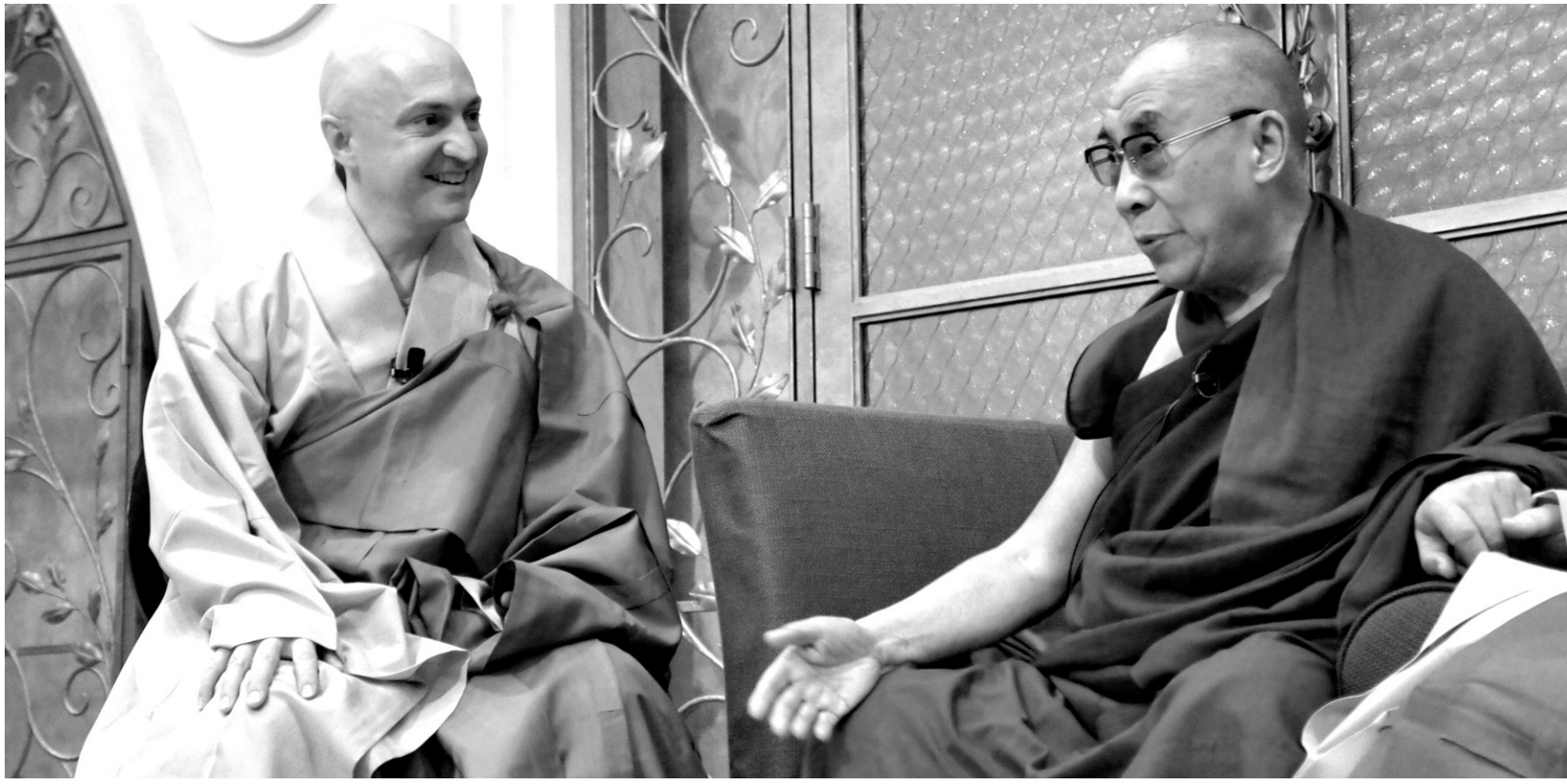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법에 대한 믿음과 의식, 예를 들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라고만 한다면, 수천 권의 주석서와 인도에서 번역된 300여권의 경론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것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수많은 주제와 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의 여러 범우님들께 불교공부에 좀 더 집중해주시기를 호소하고 제안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야경>이다. ‘반야경’이라고 할 때 이름에 ‘반야’가 있다. 선정에 관한 경전이 있기는 하지만 주된 것을 반야경으로 간주한다. 여기서서는 주로 ‘반야’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 즉 지혜를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듣는 것에서 생긴 지혜’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 이해한다. 그 다음에는 듣는 것에 대해 거듭해서 생각함으로써 ‘생각하는 것에서 생긴 지혜’에 대해서 확신한다. 확신한 의미에 대해서 거듭해서 뒤음으로써 처음에는 분석을 가진 경험을 얻고, 그 다음에는 분석이 없는 경험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경우 ‘뒤는 것에서 생긴 지혜’가 생긴다.

어떻게 해야 조화로운 수 있나

현각 스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겠는가.
달라이라마: 유럽연합의 정신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개별적인 나라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좁은 마음과 시각으로는 불가능하다. 한국이 비록



달라이라마(오른쪽)는 현각 스님과 대담을 통해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해도 내적으로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낀다. 물질은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며 공존의 삶과 열린 마음을 강조했다.

동일한 민족,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분리돼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전체적인 시각이 없고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종교도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으로 나누어진다. 만약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 동일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원하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푸른 지구를 공유하고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들은 동일하다. 우리는 동일한 인간으로 함께 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70여 명 중의 일부다. 자연재해, 지구 온난화에는 예외가 없다. 뉴욕처럼 세계의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한국이 제외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각 스님: 우리의 종교와 실천에 대해서 순수하게 과학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가.

달라이라마: 1979년에 소련을 처음으로 방문해 과학자들을 만났다. 내가 다섯 가지 감각기관 외에 다른 것을 말했다고, 그 때 근본 마음을 말했다. 그 때 소련의 과학자들은 곧바로 그것을 종교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들의 과학적인 사고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었고, 어느 정도 감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과학자들, 예를 들면 미국의 과학자, 유럽의 과학자들은 매우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사람들은 근본 마음의 의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들은 명상할 때 감각기관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보는 것,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의 본성은 지속된다. 그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다. 지금 과학자들은 이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람이 명상할 때 뇌의 변화가 어떤

가을 연구한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 말씀했다. 제 생각으로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독특한 것이 있다. 부처님께서 “오, 나의 제자들이여, 나의 가르침을 여러 분들의 신념과 헌신으로만 받아들이지 마라. 철저히 따져보고, 연구해보라. 연구하고 따져보고 난 후에 확신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용수보살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지자(知者)는 위대한 사상가이고, 논리학자이고, 철학자이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따르지 않고 따져본다.

현각 스님: 우리는 명상과 불교를 웰빙, 행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진리를 찾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생

각은 어떤가.
달라이라마: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인, 무슬림, 힌두들이라도 불교적인 실천에 대해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명상인 지(止), 인내에 대한 실천, 용서에 대한 실천을 기독교인과 무슬림인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실천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불교경전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최고로 훌륭한 과학자도 뇌와 감정의 관계에 대해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은 마음과 감정의 체계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한다. 우리는 절대로 “비신자이어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유해야 한다.

불교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은 논리적
현각 스님: 어떻게 하면 한국불교에 도움이 되고, 한국의 전통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해달라.

달라이라마: 20세기 후반 물질적 풍요를 누린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물질적인 가치는 내적인 평화를 주지 않는다. 매우 부유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은 풍요롭지만, 사람으로서의 의식, 기대, 두려움 등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결과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자, 약학자, 뇌과학자들은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마음, 즉 번뇌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예전의 인도전통에서는 지와 관을 실천했다. 본질적으로 마음의 본성, 마음의 체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많은 과학자들은 불교에서 설명하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동안에도 우리 불교도들은 불교가 우리의 고유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배워야 한다.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앙하는 것은 훨씬 견고하다. 그 믿음은 논리적인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접근이다. 단지 믿기만 하는 믿음, 전통적인 믿음은 그렇지 않다. 우리 불교도들은 진정한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달마가 무엇이고, 승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전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그래서 한국의 범우님들이 일상적인 명상을 진행하면서도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란다. 또 한국불교의 가르침은 대부분 중국어로 쓰여진 것일 것이다. 일부 한문으로 된 불교문헌은 티베트문헌보다 풍부한 것이 있다. 몇몇 경우에는 티베트문헌이 한문문헌보다 더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훌륭한 인도논사가 남긴 문헌을 여러 분들의 언어로 번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보다 더 지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도의 2500년의 역사에서 불교와 법은 도전을 받았다. 거대한 비불교의 세력은 몇 가지 불교의 개념에 대해 도전했다. 그들이 도전했기 때문에 불교논사도 똑같이 도전했다. 도전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21세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와 법에 대한 이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사론> 3장에서 이 세상의 중심에는 수미산이 있고, 태양과 달이 비슷한 높이에 있고, 그 주위를 수미산이 둘러싸고 있다고 설명한다. 나는 여전히 불교도이고, 단순한 불교승려다. 하지만 더 이상 수미산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세간(世間)이 언급했기 때문에 여전히 땅이 평평하고, 수미산이 중간이라고 고집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불교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체계를 알면, 이우, 논리, 실험을 통해 우리가 불교를 발전시킬 것을 안다면 도전이 있더라도 불교에 대한 여러 분들의 신념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만약 신념을 단지 전통으로 받아들인다면 도전이 생길 경우 약간 불편해지고 흔들린다.

여러분들이 강한 불교적 신념을 가진 것을 찬탄한다. 또 중요한 것이 있다. 인도는 여러 종교의 발생지이고, 그래서 많은 종교는 인도를 기원으로 한다. 오늘날 인도에는 세계의 모든 종교가 서로 배우면서 조화롭게 살고 있다. 한국에도 여러 가지 믿음이 존재할 것이다. 종교 간의 화합과 친밀감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티베트처럼 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여러분의 정체성의 일부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종교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믿는 것은 자신의 종교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들 출가익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이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